"법향가득한 절에서 백년가약 맺고싶어요"

실속파 신세대 사찰 결혼식 선호 추세

10월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결혼식장들은 벌써부터 러시를 이루고 주말이면 예식장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본격적인 결혼시즌이다.

'추억에 남을 결혼식을 값싸고 편리하게' 이것은 결혼을 앞둔 대부분의 예비신랑·신부들의 공통된 화두다. 하지만 이같은 화두를 풀기위해 하루종일 전화다이얼을 돌리고 예식장을 둘러봐도 화두 풀기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번화가의 예식장들은 이미 예약이 완료됐고 고급호텔 등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기 때문이다. 한창 설렘과 신혼의 꿈, 인생설계로 가득해야 할 금쪽같은 시간들이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과소비로 흐르기 일쑤다.

◇인생 최대의 중대사인 결혼식이 호화·과소비·무질서로 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 알뜰한 결혼식을 위해 사찰혼례를 선호하는 실속파 신세대들이 늘고있다.

비용저렴·시간여유·경건분위기 '장점'
전문식장 9곳 '불자가정 만들기' 일조
지역주민에 무료시설대여…결혼상담소 운영

이같은 혼례문화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다 뜻깊게 치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사찰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들이 속속 늘고 있다.

특히 사찰결혼식은 단순한 장소제공 차원을 벗어나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결혼상담소를 병행 적극적인 불자결혼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전 가족과 일반인들이 여법하게 치를 수 있고 포교신행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몫을 해내고 있다.

사찰뿐 아니라 신행단체서 운영하는 결혼상담소에서는 결혼적령기의 남녀의 결혼알선을 비롯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는 무료결혼식도 올려주고 있다.

지난 4월 낙성된 부산 정수사(주지 원광)의 경우 10월 한달동안 7쌍의 결혼식이 예약된 상태이고 이같은 현상은 결혼식장을 갖추고 있는 조계사, 구룡사, 능인선원, 봉은사 등의 사찰도 마찬가지다. 조계사, 구룡사, 봉은사, 능인선원 등은 결혼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두배가량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사찰에서 꼭 식을 올려야 한다는 불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찰측의 얘기다.

오래전부터 사찰결혼식은 '불자가정만들기' 일환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사찰결혼식은 일부 예비신랑·신부들로부터 외면 당하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불교문화원이 미혼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4%가 자신의 결혼식을 사찰로 고려했다고 답했으나 실제로 결혼식장을 사찰로 정한 불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사찰이 급변하는 결혼문화에 따라가지 못해 신랑신부들이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혼식장 운영 사찰·단체

사 찰	연락처
조계사	(02)720-1890
구룡사	(02)575-7766
능인선원	(02)577-5800
봉은사	(02)517-1331
불교문화센터	(02)719-2606
성화사	(053)625-9030
법왕사	(053)766-3747
정수사	(051)758-6022
전북불교회관	(0652)75-0108

하지만 최근 들어 사찰에서는 별도의 예식장, 폐백실, 대기실, 식당 등을 비롯 드레스, 예복 대여는 물론 화장 사진 신혼여행까지 처리해주고 있어 적잖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식장에서 드라이 아이스 폭죽 물방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통통튀는 결혼식을 연출해 준다.

특히 사찰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복잡한 도심을 피해 여유로운 공간과 시간확보 △저렴한 비용 △뜻있는 혼례식 △심각한 주차문제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혜명심씨(조계사 결혼상담소 실장)는 "인생 최대의 중대사로 꼽히는 결혼식을 사찰에서 경건하게 치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다"며 "청신사 청신녀들을 정법과 자비로 이끌때 사찰결혼식은 더욱 빛을 발하고 불자가정만들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사찰예식 앞둔 고명오·김난숙 예비부부

"그동안 쌓아온 신심과 원력을 부처님전에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었습니다. 또 절에서도 이렇게 멋지고 행복한 혼례를 올릴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후배법우들이 갖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오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통 불교화혼식을 올릴 예비부부 고명오(43·회사원)·김난숙(39)씨.

"부처님전에서 불심·사랑 확인합니다"

고명오씨는 87년부터 대승불자회 회원으로 김난숙씨는 조계사청년회 회원으로 남다른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같은 도량에서 신행활동을 펼쳐온 이들은 현장스님(극단 바람대표)의 주선으로 서로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정암스님(조계사 총무국장)은 혼례날까지 정해줄 정도로 이들의 인연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말하는 고씨는 "항상 부처님전에 향을 사르고 삼배할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라며 "처음 만나 조계사 덕왕전에 참배할때 감회는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김씨도 "처음 본 순간부터 바로 이사람이 나의 평생도반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근〉

■불교식 화혼의식 이렇게

하객 축하합장…삼귀의례…칠경화 헌화

절에서 혼례를 치를대는 물론 일반 예식장에서도 스님을 주례로 하고 불교의 화혼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행한다면 이는 곧 부부로 인연맺음과 동시에 진정한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불교에서는 남녀의 결혼을 화혼(華婚) 이라고 한다. 사회자가 식의 시작됨을 선언하면서 화혼식은 시작된다. 이어 주례자가 등단하고 화동과 화녀의 인도를 받아 신랑·신부가 차례로 입장한다. 입장이 끝나면 주례법사가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고 향을 사른 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삼귀의를 한다.

이어 주례법사가 그날의 성스러운 경사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을 낭독한다. 고불낭독의 순서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고 절한다.

신랑·신부의 상견례가 끝나면 헌화가 이어진다. 다섯 송이의 꽃과 두 송이의 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이 먼저 다섯 송이를 주례법사에게 주면 주례는 이것을 받아 불전에 헌화한다. 다음으로 신부가 꽃 두송이를 신랑에게 주고 신랑은 다시 주례법사에게 준다. 주례는 이 꽃을 불전에 헌화한다. 〈칠경화〉는 부부의 합심으로 구도에 정진함을 의미한다.

이어 예물교환이 있으며 혼인서약과 성혼선언순서를 갖는다. 스님이나 법사를 모시고 주례사를 듣고 축가 축시 등 축하의 시간도 갖는다. 이후 사홍서원을 제창하고 신랑·신부가 주례법사와 내빈께 인사하고 퇴장하면 모든 화혼의식을 마치게 된다.

도움말 : 설산스님〈불교사회봉사회장〉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바라문의 장 *
단호하게
욕망의 흐름을
끊어라

이향원

불은 가득,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2大 특별 기획

특별 기획 그 첫번째

사보(寺報) 전시회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보(寺報)들을 모아 일 주일간 본점 매장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구현에 뜻을 두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전시기간:** 10월 23일~29일(일 주일간)

▶ **사보 구분:**
① 간별(유가, 무가) -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등
② 판형별(유가, 무가) - 4×6판, 4×6배판, 국판, 국배판, 신문대판, 타블로이드판

▶ **전시 내용:**
각 사보의 최초 발행판 및 최신 발행판
각 사보의 연혁 및 사찰 소개

▶ **참관 고객 인기투표:**
재미 있는 사보, 인상 깊은 사보, 받아 보고 싶은 사보 등을 선정하여 현대불교신문 지상에 발표

※참여할 뜻이 있는 사찰이나 단체는 혹 공문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책방 여시아문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책방 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737-0695
팩스:737-0696

특별 기획 그 두번째

'좋은 책 선정' 위원회 발족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 여러분의 보다 알찬 독서 생활을 위하여 '좋은 책 선정'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광고와 함께 일반 대형 서점에 진열된 베스트 셀러들 때문에 오히려 '책 읽기'의 가벼워지기와 편식 현상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훌륭하게 기획된 우수 도서들이 정작 독자들의 손에 미치기도 전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 또한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좋은 책'은 고객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 **선정 위원회:** 각계 전문가 6명, 고객 6명으로 구성
고객 가운데에서는 독후감(불서에 한하여 5매 가량)을 접수 받아 그 가운데 안목이 뛰어난 고객 6명을 선출, '좋은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선정 기준:** 선정 위원 각각 신간 2부, 구간 2부(총 48부)를 다달이 본사 양식에 따라 추천하고 그 가운데 신간 5종, 구간 5종을 선정

▶ **운영 방법:**
매월 15일까지 좋은 책 선정 위원으로부터 도서 추천 마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주기 전시 및 소개
매월 선정된 도서는 소식지 및 현대불교신문에 게재